

심양시 주최 2010년 동북아발전포럼 참석 및 현지 국내업체 방문

-박훈 연구위원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 외 1인

1. 출장 개요

- 기 간 : 2010년 8월 29일(일)~9월 1일(수) (3박 4일)
- 지 역 : 중국 심양시
- 출장자 명단 : 2명
 - 부원장실 : 김희석 부원장
 -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: 박 훈 연구위원
- 방문 기관
 - 중국 심양시 주최 2010 동북아발전포럼 참가(부원장님 주제발표)
 - 재중국 심양시 한국인상회
 - LG전자, GE Energy(터빈제조), RE Power(풍력발전기 조립공장) 심양 공장

2. 출장 목적

- 심양시 주최 2010년 동북아발전포럼 참석(부원장님 주제발표)
-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 및 해외 업체 방문을 통해 중국의 투자여건 및 심양시의 투자유치정책 파악

3. 출장 일정

- 8월 29일 (일요일)
 - 동북아발전포럼 환영리셉션 참석
- 8월 30일 (월요일)
 - 동북아발전포럼 개막식 참석
 - 신흥산업발전 및 투자포럼 참석 및 부원장 주제발표(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과 한·중 협력)
- 8월 31일 (화요일)
 - 생태도시건설과 투자협력 포럼 참석
 - 재중국 심양시 한국인상회 방문
- 9월1일 (수요일)
 - LG전자, GE Energy(터빈제조), RE Power(풍력발전기 조립공장) 심양 공장 방문

4. 업체 방문 결과

- 중국 요녕성 성도인 심양시는 중국 동북부 남쪽의 요녕반도 중심에 위치해 있고, 중국 동북부의 경제, 문화, 교통, 산업, 금융, 과학 및 정보 중심

지 일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의 중공업 기지이며, 중국의 219개 도시 중 사회 전반에 걸쳐 제5위에 해당하는 대도시

- 총인구는 7,410,000명이고, 시내 인구는 4,884,000명이며 심양시의 조선족 인구는 약 85,000명 정도

- 심양시는 중국 동북 지역의 철도 중심지로, 북쪽으로는 러시아, 동쪽으로는 북한, 남쪽으로는 북경으로 연결

- 심양시 150Km 반경에 철강 도시인 Anshan(鞍山), 석유화학 도시인 Fushun(撫順), 석탄 및 철광도시인 Benxi(本溪), 섬유직물 도시인 Dandong(丹東), 항구 도시인 Yingkou(營口), 화학섬유 도시인 Liaoyang(遼陽) 및 곡물과 석탄 도시인 Tieling(鐵嶺)이 있어 심양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

○ 중국 심양시는 최근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인력 확보도 용이하지 못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 직면

- 특히, 심양에 진출한 한국의 봉제의류 및 신발업체들이 상당부분 폐업 하던가 내륙지역으로 이전

○ LG전자 심양공장(브라운관 TV 생산)은 중국 내수유통을 중단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, 2011년 경에 브라운관 TV 생산을 중단할 예정

- 중국내수는 매출은 증가하지만 유통구조의 문제로 인해 짝퉁 등의 반품 등 유통비용 과다 등으로 채산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

○ 중국 심양시는 현재 서울시의 강남과 상해시의 포동과 같이 시내를 가로지르는 혼하강 이남에 혼남신구를 개발 중에 있음.

- 혼남신구 개발과 함께 첨단산업 유치를 적극 추진 중

- 첨단산업 중에서 풍력발전 업체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, 현재 미국의 풍력발전 업체인 GE Energy(터빈제조), RE Power(풍력발전기 조립공장)가 입주해 있으며, 풍력 타워 업체 유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.
 - 특히, 한국의 타워업체 유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, 동국 S&C(한국 풍력 타워 생산업체)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
- 따라서 앞으로 중국, 특히 심양시에 진출을 원하는 우리 업체들은 심양시의 투자유치정책, 내수유통구조, 생산여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
- 심양시는 현재 첨단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가 필요